

박종철 열사 관련 자료모음 1 : 1987. 01-02 (1)

목차

번호	일시	제목	생산처	페이지
1	1987. 01. 16	성명서 - 무고한 한 학생을 죽인 전두환 살인정권을 온몸으로 거부하자	민주화운동청년연합	3
2	1987. 01. 16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을 애도하며 고문 살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 대책위원회	4
3	1987. 01. 16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대책에 대한 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
4	1987. 01. 17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사람이 죽었다 - 박종철군의 충격적 죽음에 당하여 -	민주헌정연구회	9
5	1987. 01. 17	성명서	한국정치범동지회	10
6	1987. 01. 19	이 땅에 다시는 원통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11
7	1987. 01. 20	종철형을 보내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12
8	1987. 01. 20	성명서	한국정치범동지회	13
9	1987. 01. 20	현 정권의 야만적인 고문살인행위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14
10	1987. 01. 20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 앞에 옷깃을 여미며 -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16
11	1987. 01. 20	조사	민가협 전국 구속학생 학부모회 일동	17
12	1987. 01. 22	故 박종철열사 고문살인 항의농성을 시작하며 - 수사기관의 고문살인시설 전면폐쇄와 현 정권의 퇴진이 이제 본격 논의되어야 한다 -	민주헌정연구회	20
13	1987. 01. 22	인권소식 제 232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21
14	1987. 01. 22	고난받는 이를 위한 목요예배 - 고 박종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28
15	1987. 01. 22	현 정권의 야수적 고문살해 행위를 규탄한다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32
16	1987. 01. 23	살인고문 자행하는 독재정권 타도하자!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33
17	1987. 01. 24	고문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35
18	1987. 01. 25	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고문 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대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외	43



성명서

— 무고한 한 학생을 죽인 전두환 살인정권을 은뎀으로 거부하자 —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통치는 스무살 꽃다운 젊은 학생의 생명을 빼앗기에 이르렀다. 1월 14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서울대 3학년 박종철 군의 죽음은 2,000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현 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으로서 온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치안본부는 지난 14일에 있었던 박종철 군의 죽음을 32시간이나 숨기고 있다가 16일에서야 뒤늦게 불리한 심문에 의한 단순 쇼크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군의 주위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군은 평소 담배도 피지 않는 의지가 강한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번의 구류와 한 차례의 구속까지 경험한 투철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냉철하고 강한 의지의 청년이 수사관의 큰 소리 몇마디에 허약한 노인이나 심장병 환자처럼 공포에 질려, 그것도 연행된지 단 두시간만에 쇼크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문보도만을 보더라도 박군의 시신 곳곳에 피멍자국이 있었다는 가족의 증언과, 「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을 조사관들로부터 들었다」고 한 용산병원 오인상 교수의 말, 그리고 사체부검 결과 오른쪽 폐에 타구공만한 출혈반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전기충격요법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한 의사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박종철 군의 사인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물고문, 전기고문에 있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채 비밀리 사체부검이 이루어졌고 고문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박군의 시신을 보존하지 않고 황급히 화장해버리도록 처리한 사실은 박군에 대해 가혹한 고문이 행해졌다는 심증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85년 본 연합 김근태 의장에 대한 치안본부의 살인적 고문에서부터 서노련 구속자에 대한 보안사의 고문, 부천서에서의 권인숙양에 대한 성고문에 이르기까지 해아릴 수 없는 야만적 고문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백주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세력에 대한 현 정권의 이러한 무자비한 고문이 이제 한 꽃다운 젊은 청년의 목숨까지 짓밟기에 이르른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산 안전기획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옥인동 시경대공분실, 보안사 등에서 민주화와 민족자주를 위해 일하던 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들의 살인적인 고문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들을 저 악랄한 살인정권의 손에서 구출하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고문받지 않을 민주주의의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자.

이번 박종철 군의 죽음에서 우리는 폭력으로 등장한 현 군사독재정권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폭력 없이는 한시각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면서 무고한 한 학생을 죽인 저 전두환 살인정권을 은뎀으로 거부하자.

우리는 박군의 죽음에 대한 한없는 슬픔 속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타도만이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무고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군부독재타도에 총 매진할 것이다.

1987. 1. 16.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30-9452)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을 애도하며 고문 살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14일 오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언어학과 3년)이 같은 날 갑자기 “쇼크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접하여, 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는 슬픔과 분노속에 16일 오전 8시 긴급히 회동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1.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 이후, 치안본부에 의하여 계속되어 온 악명높은 고문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이번 박종철군의 죽음이 쇼크사라는 치안본부측의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고문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추정한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전 양심세력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총단결해야 한다고 믿어, “박종철 고문 살인 확인위원회”를 범재야 연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는 최근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시경 대공분실, 보안사등 여러 특수 수사기관에 수십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불법연행되어, 장기간 불법 구금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도 박종철군과 같은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와 관련 당사자들을 엄중히 형사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김근태 고문사건, 권양 성고문사건 등에 이어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에 이르러, 도덕성을 철저히 결여한 현 고문살인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6. 끝으로 박종철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아울러 박종철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고문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87.1.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 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19, Seodang-ro, Yongsong-gu, Seoul 150-840, Korea
Tel: 02-363-1111, Fax: 02-363-1112

인권위발 : 제 87 - 3 호

1987. 1. 16.

수 신 :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대책위원회, 진 재야단체

제 목 :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대책에 대한 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 폭력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별첨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16일 오후에는 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임원회를 소집, 이번 사건의 의미와 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그간의 모든 고문 사건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준 사건이며, 헌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어슬허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정권의 복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범 재야 연합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대책위원회와 진재야 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음 -

1. 다음 주중 재야권 전체의 역량을 모아, '고문종식 및 고문살인정권퇴진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위 범국민대회의 추진 주체로서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대책위원회를 모체로 제 민주세력을 총망라하여가칭 '고문살인정권퇴진촉구 범국민운동연합'을 결성할 것과 그렇게 결성될 범 국민운동 연합을 중심으로 향후, 강력하고 지속적인 고문살인정권퇴진촉구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본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개될 헌정권에 대한 폐진 촉구 운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987. 1.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용 숭

현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에 불법연행 장기구금자 현황.

14일 남영동 치안본부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이 가혹고문 행위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민거협에는 행방불명된 많은 학생가족들이 자식과 남편의 행방을 찾기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구속영장이나 소속 수사기관도 밝히지 않는 수사관에 의해 노동현장에서, 거미에서 강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40일이 넘는 지금까지 가족들에 의해 생사확인도 되지않은 채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안기부 지하실과 치안본부 수사실에 감금되어 온갖고문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족들에 의해 확인된 연행자가 30명이 넘으며 확인되지 않은 연행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철군의 초크사로 미루워 보아 현재 안기부와 치안본부에 불법연행 장기 구금자들도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받았는지는 미뤄 짐작 가능합니다.

*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자중 확인된 명단

김 상 현 (26.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전국화학노조연맹 기획위원) 1986년 11월 27일 전국화학노조연맹 사무실에서 연행.

김 성 식 (29.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전국화학노조연맹 기획부장). 1986년 11월 29일 어머니 가게에서 연행.

김 찬 (29. 성균관대 경제학과 4년 제적, 출판사 경영). 1986년 12월 22일 출근길 전철역에서 연행.

윤 성 구 (27. 서울대 수학과 3년 제적, 번역업). 1983년 12월 23일 약속장소에서 연행.

이 호 균 (27.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출판사 근무) 1986년 12월 31 - 87년 1월 1일 조경숙 동생집에서 연행된 듯.

조 경 숙 (28.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무직). 1986년 12월 31일 - 87년 1월 1일 동생집에서 이호균과 함께 연행

최 민 (28.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무직) 1987년 1월 2일 자취방에서 연행.

김철수 (26.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번역업). 1987년 1월 4일 장소미상 연행.
 민병두 (27. 성균관대 무역학과 4년 제적). 1987년 1월 5일 약속장소에서 연행.
 목혜정 (26. 이화여대 사학과 4년 제적). 1987년 1월 5일 민병두와 부부관계이며
 함께 연행.
 차호정 (26. 서울대 국문과 3년 제적). 1987년 1월 4일 마포근처에서 연행.
 이춘자 (24.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86년 12월 15일 연행.
 강인자 (23.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86년 12월 15일 연행.
 김경환 (24. 서울대 중문과 졸업) 1986년 12월 19일 집에서 연행.
 김명환 (28. 서울대 졸업) 1986년 12월 18일경 연행.
 하은숙 (26. 서울대 사학과 졸업, 번역업). 1987년 1월 2일 약속장소에서 연행.
 박병태 (23. 서울대 무역학과 4년 제적) 1987년 1월 7일 연행.
 외 김영환등 17명.

● 치안본부에 연행된 자중 확인 명단

남춘호 (30.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동학과 박사과정, 사회과학 연구소 조교).
 1987년 1월 6일 출근길 연행.
 남충희 (29. 서울대 철학과 졸업, 나경상사 근무) 1987년 1월 6일 오전 회사에서
 연행.
 성두현 (28.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무직). 1987년 1월 6일 오후 7시경 자택에서
 연행.
 김종명 (27.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대우 기술부 근무) 1987년 1월 6일 회사에서
 연행.
 강상호 (26.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동학과 박사과정). 자택에서 연행.
 박재균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동학과 대학원 재학중). 1987년 1월 6일 하숙
 집에서 연행.
 윤은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김충수 (서울대 국문과 졸업)
 김영진 (28.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7년 1월 10일 자택에서 연행.

박재국 (24.송전대 국문과 2년 제적, 부친 작은자택 야학교사). 1987년 1월 10일
밤 자택에서 연행.

홍영희 (24.송전대 사학과 졸업, 공장 취업). 1987년 1월 10일 자택에서 연행.

강은정 (24.성신여대 영문과 제학, 야학교사). 1987년 1월 10일 박재국 집에
에서 연행.

김미란 (25.이화여대 졸업, 야학교사). 박재국 집에 들렀다가 잠복형사에게 연행.
1987년 1월 11일.

이재현 (25.고려대 졸업, 공장 취업). 1987년 1월 11일 박재국 집에 들렀다가 잠
복형사에게 연행.

최용석 (29.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반월 금속공장 공원). 1986년 12월 6일 연행.

성영호 (24.서울대 조소미술사학과 유학) 1986년 12월 7일 연행.

유상설 (26.전남대 중퇴).

민병태 (27.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1986년 11월 29일 연행.

이정형, 이동진 등 연행.

* 수사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연행자

강승경 (21.감신대 기독교교육과 2년). 1987년 1월 7일 밤 10시 자택에서 연행.

표양희 (21.감신대 기독교교육과 2년). 1987년 1월 8일 밤 9시 시경이라고 하는 수
사관이 자택에서 연행함.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사람이 죽었다.

— 박종철군의 충격적 죽음에 대하여 —

지난 1월 14일은 충격의 날이다. 이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기관에서 학내시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학생 박종철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한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또한 애매하기 짝이없는 치안본부의 사건발표에 대하여 우리는 의혹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치안본부 발표에 따르면 그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30분만인 11시 20분경 수사관이 「거짓말 말라」며 책상을 치자 「억」하며 쓰러졌다고 한다. 삼척동자인들 이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의혹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이리하다.

첫째, 박종철군은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형을 받은 바 있다. 스텐 조사를 받았을 것인 박군이 수사관의 책상치는 소리에 놀라 쇼크로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둘째, 사체검안 의사와 부검입회 의사 및 부검입회 가족에 따르면 박군의 뒷머리, 이마, 가슴, 목, 손가락 사이, 하복부, 사타구니, 허벅지 부분 등 거의 온몸에 피명 자국이 있었다는데 이런 상처들이 책상치는 소리로 생겼다는 것인가.

셋째, 사체검안 의사에 따르면 당시 박군의 배가 크게 불러 있었고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았다는데 이는 무슨 일이 있었음을 뜻하는가.

넷째, 박군의 연행시간은 오전 8시 10분경이고 조사시작은 10시 50분부터라니 그 사이 2시간 40분 동안에 수사관과 박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다섯째, 부검후 10시간도 채 안되었고 신문기사가 나간 직후인 16일 아침 8시 25분 박군의 시신을 급거 화장터로 보내 곧바로 화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14일 오전에 사망한 사건을 왜 16일에야 발표했는가.

일곱째, 도대체 시위관련 조사를 왜 대공수사기관에서 하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당국의 발표에 우리는 다시한번 일련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박종철군의 죽음이 반인간적 고문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고자 한다. 세계의 인권문제가 되었던 김근태씨 고문사건에서, 부천서 성고문사건에서, 그리고 수없이 문제가 되었던 각종 고문사건과 의문의 변사사건에서 우리는 박군의 죽음과 같은 인간말살의 최악의 사태를 염려해 왔다. 마침내 몸서리치는 일이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전국민의 이름으로 현정권에 대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의 모든 사태의 책임이 현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전국회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87. 1. 17
민주헌정연구회

성 명 서

우리는 어제 시국과 관련하여 치안본부·남영동 대공수사 2단에서 조사를 받든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수사도중 수사관이 책상치는 순간 "억"하고 비명만 남긴채 숨졌다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의문에찬 이사건이 30여시간이나 숨겨오다가 기자들의 끈질긴 추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것도 문제려니와 시체 부검을 위한 압수 수색영장도 비밀영장에다가 부검결과 박군이 입은 외상마저도 함구된 점에 더한 의혹을 금할수 없다.

의견적인 민주화의 열기와는 반대로 전국교도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치범들에 대한 극악한 폭력사태와 김근태씨와 권인숙양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천인공노할 고문행위의 진상해명과 척결이 없이 이사건이 우발적이라고 말한 당국의 발표가 모든국민을 납득시키지도 못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우리도 당국에 대한 변호사회와 재야의 유관 인권단체등 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를 제의한다.

1987. 1. 17.

한 국 정 치 범 동 지 회 회 장 은 반 응

한국정치범동지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단원동 252-1

(대신빌딩 1005 호)

전 화 739-4885

이 땅에 다시는 원통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현 군사독재정권의 잔인무도한 고문에 또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형제 한 분의 아리따운 젊은 목숨이 파리보다 못하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85년 10월 서울대 민주위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서울대생 우종원 군이 황간역 철로변 콩밭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것을 비롯, 86년 6월, 무전기를 장착한 수사요원에 의해 연행된 후 전남 여천의 후미진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인천 연안 가스 근로자 신호수 군, 86년 8월 부산 송도앞바다에서 시멘트덩이를 발에 매달고 수장된 채로 발견된 서울대 김성수군 등의 의문에 가득찬 죽음에 이어 이번에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수사받던 중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바로 민족적 대참화인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은 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집권 야욕에 눈이 어두운 현 정권이, 겉으로는 민주화주도니 국민기본권 신설이니 하는 달콤한 말을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정권유지의 하수조직인 안기부, 치안본부, 시경, 보안사 등의 은밀한 고문실에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수 많은 양심인들을 참혹하게 고문하면서 용공분자로 조작해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치안본부, 안기부, 보안사의 지옥보다 더한 고문실에서는 오로지 민족의 참다운 자주권과 민주실현의 의로운 신념 때문에 험난한 민주화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형제·자매가 저 야수만도 못한 군사독재의 더러운 고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은 단순한 고문치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야만적·살인적 고문행위가 영원히 사라져야 함을,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과 정의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저 가증스러운 군사독재가 분명, 국민의 손에 의해 차단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죽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원통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은 바로 정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과 형제의 일입니다. 군사독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러한 공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고문행위를 규탄하고 군사독재의 퇴진을 요구합시다. 한줌도 안되는 독재의 무리가 주인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 모두가 주인이 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맞이합시다.

양심인을 살인하는 군사독재의 피문은 손은 바야흐로 동터오는 민주주의의 새 새벽 앞을 서서히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찬연한 새날에 우리 모두 떳떳한 국민이 됩시다. 저 불의한 폭력의 무리, 군사독재를 차단하기 위해 한뜻으로 뭉치고, 외치고, 박차고 일어납시다.

1. 박종철 군을 죽인 치안본부를 즉각 해체하라!
1. 살인수사 사주하는 군사독재 물러가라!
1. 모든 민주세력은 하나되어 투쟁하라!
1. 양심수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1.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침묵하지 맙시다!

1987. 1. 19.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종철형을 보내며

우리는 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우종원,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 부를 때마다 슬픔과 분노가 솟아오르는 이름들 우리는 그 이름들 위에 또 다시 박종철 학형의 이름을 더해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자세로, 한치의 타협도 없이 치열하게 싸워왔던 형을 보내며, 역사속에서 동등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던 형의 말을 가슴깊이 되새긴다. 이제 형을 보내며,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슬픔과 경악과 분노와 충격을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의미없는 슬픔의 조각들을 던져버려야 함을 안다. 하루하루 살아 기억되는 형의 죽음을 두손 불끈 쥔 채로 가슴속에 채워 두어야 함을 안다. 절대로 눈물로 형의 죽음을 보내버리지 말아야함을 안다.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핏발선 두눈속에 새겨 두어야함을 안다. 지금 우리는 형의 영정앞에서 생각해본다.

누가 형을 죽였는가? 형의 목덜미를 쥐고 옥조에 머리를 처박고, 전기줄을 형의 몸에 휘감은 두 살인마인가? 본시 인간이었을 그들을 살인마로 변모시키기 위해 찬바람부는 동안 모든 민주하는 이들을 다 잡아 죽치라고 채근한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인가? 우리들은 안다. 종철형을 죽인자, 바로 자신의 존립을 위해 성고문등 온갖 끔찍한 고문과 살인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군 사파소정권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바로 종철형이 이땅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무리들이라는 것을.

80년 5월, 잔인하도록 눈부신 햇볕이 내리찍는 금남로에서 수천의 공수부대를 동원해 이천여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투완 군부파소집단이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방조하고 사주하면서 끊임없이 이땅을 짓밟아온 미제국주의자들이 종철형이 끝내 이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고자 했던 놈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제 우리는 종철형의 죽음앞에 선언하고자 한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형이 그렇게 하신것처럼 두눈 똑바로 뜨고, 두주먹 불끈쥐고, 끝까지 싸워나가고야 말 것임! 이제 한치의 감상도, 한점의 회의도 없이 싸우는 이들의 단결을 믿으며 싸우는 이들의 승리를 믿으며, 앞 아있는 이들의 일어섬을 믿으며, 함께 싸워나갈 것임! 저들의 폭력성이 형의 죽음으로 인해 반성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든 감상들을 뿌리치며, 그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을 집단, 절대로 민중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 절대로 민족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 절대로 민주적 뜻을 견딜수 없는 집단, 반드시 반드시 살아남아 처단해야만할 집단임을 가슴깊이 새겨 넣으며, 우리는 종철형을 보내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이상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함을 안다. 그리하여 형의 짧았던 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역사위에서 증명해 보일 그 날, 임진강변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 1.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 1. 살인고문의 본거지 치안본부, 보안사, 안기부를 즉각 해체하라!!
- 1.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 1. 민족민주운동 탄압하는 살인정권 타도하자!!!
- 1. 박종철 학형을 살려내라!!!

1987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성명서

1월 19일 사국판권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살인 사건의 치안본부 발표전문을 접한 우리 7000여 회원들은 연일수십의 가증함에 또 다시 끓어 오르는 분노로 고연에 대한 애도의 정마져 빼앗기고 말았다.

이번 충격적 사건에 살인적 고문을 일찌기 처벌한 우리는 억울할았던 옛일이 상기되어 전흔마져 느껴지는 것이다.

헌법 제 11조 제2항은 법전의 한낱 장식품인 양 곳곳의 은밀한 고문장에 시 오늘날 또 내일도 고문이 자행될 것을 생각하니 그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리는 듯하다.

이번 사건은 군벌독재정권의 타성화된 연천유린장태가 빚어낸 빙산의 일각임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묻혀버린 의혹의 죽음을 그 얼마이며 사건적 후부터 사실을 은폐, 왜곡, 호도하려 했던 당국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사건진상이 추명되기도 전에 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될 박군의 시체를 사들여 회장재 증거를 언필함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원과 한과 슬한 의혹만 남긴 채 한 줄 햇빛가루가 되어 임진강 저류에 뿌려진 박군의 고문이야 어찌 구천에서인들 고히 잠들까 보나?

아직도 참회는 커녕 '뜨거운 맛쯤 보겠느냐?'며 사건최재기자들을 옥박지르는 독재정권의 화수연들의 험박은 현정권의 진척성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떠한 언어와 필설로도 은국민의 처를 짜는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수 없는 의미깊은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땅에 떨어져 석어버린 한알의 밀알로 승화시켜 그의 원혼을 달래줄 자룩한 책임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에 우리는 으름과 분노를 삼키며 마음을 차대듬고 살인고문장권 부조에 일층더 목청을 높이며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 당국은 고 박종철군의 고문살인 단행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앞에 밝히고 깊이 사죄하라.
2. 용공. 좌경사건 살로, 살인고문을 즉각 중지하라.
3. 판계 장판과 직원을 즉각 엄단하라.
4. 사건의 진상추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5. 전국교로소에 수감된 사국판권 구속자에 대한 온갖 고문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6. 연천유린 일삼는 현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결속히 성명하는 바이다.

1987. 1. 20

한국정치법동지회 회장 윤관웅

-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19일 치안본부는 지난 14일에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있었던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군이 2명의 수사관으로부터 물고문을 받던 중 목이눌러 질식사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발표를 듣고 꽃다운 한 젊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고문 수사의 참혹한 결과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한편 현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에 새삼 뜨거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온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경찰에 의해 이런 가공할 살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85년 9월 김근태 고문 사건 이후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국공연합 고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경찰추위의 거둔된 부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박종철군의 죽음은 이러한 고문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 하는가를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 애국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박종철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19일 치안본부의 발표에는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치본에서 발표된 연행 시간 및 장소가 학생집 주인의 진술 박군의 시신에 나타나 있었다는 수많은 상처,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심증을 주는 여러가지 증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망후, 32시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외부에 대해 철저히 은폐했고 고문 사실의 결정적 증거물인 박군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케 했던점, 처음에 경찰에서 시작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찰의 지체 조사로 남겨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을 되도록 은폐하려 했던 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울러 우종원, 김상수, 신호수,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느 날 실종되어 외문의 변신체로 발견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여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

박군의 죽음은 민청련의장 김근태씨에 대한 혹독한 고문 이후 서노련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문, 부친서에서의 권양에 대한 상고문 등 치안본부, 안전기획부, 보안사 및 각급 일선 경찰 기관에서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 고문 사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삼적으로 행해지는 고문들을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 2명 이외에도 지휘책임자로서 치안본부장, 내부부 장관 역시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는 2,000여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정권 반대자의 목숨까지도 손쉽게 유린해 버릴 수 있는 현 정권이기에 그 말단 기관에서의 고문 살인 행위가 끈임없이 자행될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폭력으로 들어섰고 폭력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이제야 말로 그간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앉으려 사죄하고 대통령이 정권담당자로서 총 책임 질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이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수배자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으로서 수사를 받다가 고문을 받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에서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 제 2의 박종철군의 될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언제어느곳에서 사라져 차가운 시체로 우리 앞에 돌아올런지 알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박종철군 사건을 계기로 헌법 상에 명언히 규정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고 저 전두환 고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온 국민의 적극적이고 단결된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우선 오늘부터(20일) 26일까지 1주일간을 전국적으로 박종철군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모두가 검은 리본을 착용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은 각 단체 마다 현정권의 살인 고문 행위를 규탄하고 고 박종철군의 명복을 비는 각종 집회, 신전 활동등을 활발히 전개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박종철군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땅에 고문과 폭력이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온 힘을 다해 총 매진합시다.

1987. 1. 20.

고문 및 옹공 조 작 저 지 공동 대책 위원회

고문 : 김재준, 함석헌, 문반용, 홍남순, 이민우, 문익환, 지학순, 김태중, 김영삼

공동대표 : 계훈제, 김병환, 김승훈, 박영록, 박형규, 배기완, 서경원, 송근호, 양순직, 이돈명, 이소산, 이우정, 이정숙, 조남기, 최형우.

대책위원 : 광원하 외 239명

현 정권의 야만적인 고문살인행위를 온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19일 치안본부는 지난 14일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군이 2명의 수사관으로부터 물고문을 받던 중 목이 눌러 질식사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발표를 듣고 꽃다운 한 젊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고문 수사의 참혹한 결과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한편 현 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에 새삼 뜨거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온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경찰에 의해 이런 가공할 살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85년 9월 김근태 고문 사건 이후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공공연한 고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경찰측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박종철 군의 죽음은 이러한 고문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부독재정권의 폭압 통치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 애국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19일 치안본부의 발표에는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치본에서 발표된 연행 시간 및 장소가 하숙집 주인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며 박군의 시신에 나타나 있었다는 수 많은 상처,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심증을 주는 여러가지 증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망 후, 32시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외부에 대해 철저히 은폐했고 고문 사실의 결정적 증거물인 박군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해 했던 점, 처음에 검찰에서 시작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찰의 자체 조사로 넘겨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되도록 은폐하려 했던 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울러 우중원, 김성수, 신호수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느 날 실종되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여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

박군의 죽음은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에 대한 혹독한 고문 이후 서노련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문, 부천서에서의 권양에 대한 성고문 등 치안본부, 안전기획부, 보안사 및 각급 일선 경찰 기관에서 수 없이 행해지고 있는 고문 사례 중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고문들을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 2명 이외에도 지휘 책임자로서 치안본부장, 내무부 장관 역시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는 2,000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정권 반대자의 목숨까지도 언제라도 손쉽게 유린해 버릴 수 있는 현 정권이기에 그 말단 기관에서의 고문 살인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폭력으로 들어섰고 폭력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이제야 말로 그간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대통령이 정권 담당자로서 총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박종철 군이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수배자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으로서 수사를 받다가 고문을 받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에서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 제 2의 박종철 군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사라져 차가운 시체로 우리 앞에 돌아올런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박종철 군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고, 저 전두환 고문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온 국민의 적극적이고 단결된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5. 현재 안기부 등 특수수사기관에 불법연행, 장기구금 되어(김성식 씨는 50일 이상) 고문수사를 받고 있다고 추정되는 수십명의 민주인사들에 대해 그 명단과 소재를 밝히고 즉각 석방하기를 바란다.

6. 우리는 우선 오늘부터(20일) 26일까지 1주일간을 전국적으로 박종철 군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모두가 검은 리본을 패용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은 각 단체마다 현 정권의 살인 고문 행위를 규탄하고 고 박종철 군의 명복을 비는 각종 집회 등을 활발히 전개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땅에 고문과 폭력이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 총 매진 합시다.

1987. 1. 20.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고 문 : 김재준, 함석헌, 윤반웅, 홍남순, 이민우, 문익환, 지학순, 김대중, 김영삼
 공동대표 : 계훈제, 김명윤, 김승훈, 박영록, 박형규, 백기완, 서경원, 송건호, 양순직
 이돈명, 이소선, 이우정, 이정숙, 조남기, 최형우

대책위원 : 강원하 외 239명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 앞에 웃기를 여미며 —

지난 1월 14일 소위 '좌경용공'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경찰에서는 과거 김근태 민청련 의장에 대한 고문사실과 부천서 권인숙 양에 대한 성고문 사실 등을 은폐하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발표 당시에는 고문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국민의 엄청난 분노에 질려 사건의 진실을 부분적으로 공표하고 하수인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군에게 가해진 정신적·물리적 폭력행위가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책임은 다시 하수인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살인고문의 총 책임자인 치안본부장이 고문을 집무의욕 운운하며 옹호하고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하여 좌경용공 조작을 계속하겠다고 호헌하면서 숨진 박군조차도 좌경용공으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많은 학생·민주인사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인간성이 파괴당해 왔음을 밝혀 왔으며 군사독재가 발표하는 용공좌경 사건의 뒷면에는 이같은 살인적인 고문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강간도, 고문도 좋다면 그러한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박종철 군의 죽음이 수사관만이 책임질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수사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며 그들 또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좌경용공분자임을 자백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입버릇처럼 민주화를 내세우는 민정당 정권이 무엇을 위해 그들의 하수인인 경찰로 하여금 살인과 강간도 불사하고 학생들과 민주인사를 좌경용공으로 모는 것이며 무엇때문에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제5공화국에서 폭력과 고문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이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광주에서 수천 시민을 학살한 폭력집단이며 그들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종철 군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었다. '이런 세상에서 똑똑하게 잘못이지요' 라고 절규하는 박군의 아버님이 말씀한 것같이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려했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어야 하는 사회가 더 이상 도덕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수사관에 대한 구속으로 이 사건의 책임이 다해진다고 보지 않으며 폭력집단인 현 군부독재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이와 같은 비통한 죽음이 이 땅에 다시 없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세력과 국민들은 군사독재를 물리치는 민주화투쟁 대열에 나서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박종철군 영전에 웃기를 여미고 명복을 빌면서 입으로 민주화를 떠들며 살인과 강간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군부독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것이 민주화 투쟁의 도정에서 먼저 간 박군의 뜻을 기리는 길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1987. 1. 20.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조 사

슬프도다. 원통하도다. 이 어인 날벼락인가!

아직 채 되어나지도 못한 꽃다운 스물한살의
한창 나이로 정음을 누리던 생명을 광은자가
누구이며, 이를 시킨자는 누구이던가?

엎고저께 까지도 벋들과 즐겁게 사귀고 학업에
열중하던 우리의 아들은 뜻밖의 억울한

죽임을 당한후, 한류의 재가 되어 저들의 차디찬
강물에 부녀 젖습니다. 고인이 된 종철이는

평의에 불라는 맑은 운동자에, 불의를 미워하는 명량
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찰은 불법

으로 끌고 가서는 늘하던 극악한 고문으로 허무
하게 취한 독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들도 사람

인가. 인두찌꺼기를 쓴 악마인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일진데, 이렇듯 지독한 짓을 하였을 까로.

이 십여간 고이 취쳐 똑똑한 아들의 성장에

믿음직스너워 하시던 부모님의 애용담은 그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저례를 아끼

던 죄밖에 없는 종철이의 죽음에 우리 학부는

들은 가슴은 치고 통곡할 뿐입니다.

오호라! 아깝고 원통하도다 눈을 뜨고 히직하였
다오 하지만 부디 낮이라도 고이 잠드소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나리 않도록 지켜주소서.
전기고문. 문고문. 모쿠가우고문. 통통국이. 비너꽃기
등 외이한 고문의 두근자를 내 쫓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지켜주소서. 그리고 이런 악법은
방조하는 무리를 추방하리 섬멸하여 주소서.

비록 몸은 비명에 갓지만, 종철의 귀한 낮은
우 국민이 기린것입니다. 권력을 멸망하고자

총칼을 마주하는 자들이여. 하늘이 무섭지 않은
가오! 어서 잘못은 깨닫고 죄없이 갓히 양심수

학생전원은 석방하시오. 차디찬 감옥에서

오늘도 신음해 있는 수많은 만제 똥똥분자

를 풀어주시오. 불법연행으로 고문으로 인관하는

이들은 우리부모들은 세상마다 고백하리 뒤쫓

니다. 종철아, 영원히 우리 국민 가슴에 새겨

지고 또 너를 통해 억압받는 영혼이 울

Date _____

잊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
지 않도록. 각성한 민족의 고난과 함께
나아갑시다. 고이 고이 잡드소서

1987년 1월 20일

민가협

전국 구속학생 학부모회 일동

故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 항의농성을 시작하며

—수사기관의 고문살인시설 전면폐쇄와 현정권의 퇴진이 이제 본격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민적 분노의 표적인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사건은 당국의 기만적 해명에서와 같이 「지나친 직무의욕」이나 「사람이면 범할 수 있는 우연한 실수」에 의하여 일어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군사독재의 본질과 관련한 것이다. 군사독재의 본질은 이론의 여지없이 폭력이다.

폭력에 의존하는 정치는 당연히 야만적 고문행위를 제도화한다. 박열사 살해사건은 제도화된 고문행위의 필연적 소산이요, 대규모화된 고문범죄의 한 단면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고문은 인간을 짐승으로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짐승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어나 살인고문을 소리높여 규탄하여야 한다. 박열사의 원혼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폭력정치의 강화와 발맞추어 증설된 각종 수사기관의 살인적 고문시설의 전면적 폐쇄야 말로 금번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신호수씨, 백기완선생, 김근태씨, 이을호씨 등 수많은 고문사건 및 허다한 의문의 실종사건 등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인책인사라고 하면서 한국현대사 최대의 불행인 광주학살의 관련자를 등용하는 국민우롱과 사건의 진상을 호도하는데 급급한 국민기만은 민주세력과 현정권 쌍방의 불행을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좀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근절하는 첩경으로서 현정권의 퇴진문제가 각계각층에서 이제 본격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식을 거행하고 살인적 고문행위와의 정정당당한 투쟁을 선언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48시간 기한부 농성에 돌입한다. 사건발생 1주일후에 농성을 시작하는 것은 지속적 투쟁을 도모하는 것임을 함께 밝히며 우리는 전 국민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1987. 1. 22

민주헌정연구회

사 건 명	관 련 자	내 용	일 시	장 소
반월지역선교탄압사건	박진희		1월 23일 오전 10 시	
교수등국보법위반사건	김현수	1 회	1월 24일 오전 10 시	수원지법 208 호
상계동주민	이병설, 유상덕 등 4 명	선고	1월 24일 오전 11 시	서울지법 118 호
민교투사전	황길구 등 4 명	선고	1월 24일 오전 10 시	북부지원
ML 당결성기도사전	윤병선교사 등 6 명		1월 26일 오후 2 시	서울지법 211 호
전대사전	김선태	2 회	1월 30일 오후 3:30	대법정
인천지전시위	김중선	1 회	1월 23일 오후 2 시	북부지원
부평역앞시위	박은미 등 3 명	선고	1월 23일 오전 10 시	인천지법
국보법위반사건	김동배 등 2 명	항소심선고	1월 23일 오전 10 시	
서노련사전	안기원		1월 24일 오전 10 시	인천지법
국보법위반사건	김문수 등 3 명		1월 28일 오후 3 시	서울지법 104 호
	조기영		1월 24일 오전 10 시	인천지법

인권소식 계속 구독에 관한 안내의 말씀

그동안 인권소식을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권소식 계속 구독에 관한 몇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인권위원회는 인권소식 구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편발송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권소식의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역시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부득이 인권소식 구독자 명단을 재정리하는 한편, 최소한 우편발송 요금은 구독자의 부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권소식을 계속 구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봉하는 회신엽서를 2월말까지 저희 인권위원회로 발송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권소식 1년 구독을 위한 현금 10,000원을 소액환 혹은 우표로 본 위원회 사무실 (1면 주소 참조)로 보내주시거나 다음 조흥은행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신 후 본 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소식 구독을 위한 송금 계좌
조흥은행 325-4-125201 김 동완

3월부터는 새로 신청하신 구독자들에게만 인권소식을 계속 발송해 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권소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903호/764-0203

제 232 호 1987.1.22

[대한민국헌법]

- 제 11 조 (신체의 자유와 피고인의 권리, 구속의 적부심사,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수사관 2명구속, 내무·치안본부장 경질



서울대생 박종철군 (21세 언어학과 3년)이 13일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불법 연행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이 찾고있는 같은 서울대생 박종운군 (사회학과 4년)의 소재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비롯한 고문을 받다가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숨졌다. 치안본부측은 이에 중앙대 용산병원 오연상 의사에게 왕진을 요구, 11시 50분경 치안본부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박군은 이미 숨진뒤였으며 당시 박군의 상체는 발가벗겨지고 하체는 내의와 파자마가 입혀진 상태였고 하복부가 팽만하였으며 소변이 나와 있었으며 취조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다. 당시 오연상씨는 박종철군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으나 치안본부측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소생술을 시술하였으나

무위로 그쳐 결국 12시 5분에 최종적으로 박군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그후 박군의 시신은 12시 50분경 '중앙대 용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13시 50분경 경찰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박군의 유해는 그후 15일 오후 7시경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져 오후 9시 5분부터 밤 10시 25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이라는 사람의 집도로 부검을 받았다. 부검에 입회한 박종철군의 삼촌 박월길씨와 한양대병원 당직의사 박동호교수에 의하면 박군의 뒤통수, 목, 가슴, 허복부, 사타구니 등 19군데에서 피멍이 발견되었으며, 오른쪽에 탁구공 크기만한 출혈반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부검을 마친 박군의 유해는 15일 밤 23시 50분경 경찰병원 영안실에 재안치되었다. 그후 26일 오전 8시경 박군의 유해는 벽계 화장장을 출발, 오전 9시경부터 11시 20분경까지 화장을 마쳤다. 벽계 화장장과 주변에는 전경버스 약 7대가 배치되어 상엄한 경비를 하였다. 그후 박군의 유골과 박군의 부친 박정기씨에 의해 부근 임진강 셋강에 뿌려졌다.

당국, 박종철사건의 진상 끝까지 은폐 기도, 반성의 빛 안보여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이 알려지자 15일 오후 박종철군이 수사도중 갑자기 "억"하며 쓰러졌다는 터무니 없는 발표를 하였다가 이를 추궁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19일 상오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던 도중 육조각에 목이 눌러 경부질식사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발표내용은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 연행사건과 장소부터 거짓말로 시작되었다. 박군이 연행되었다는 오전 8시 10분 박군의 하숙집에는 하숙집 주인 가족들이 7시 경부터 모두 깨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8시 40분에 박군이 그의 방에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을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전날밤 12시경까지 잠을 자지않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박군은 그의 방에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박군은 마지막 본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박군은 밤 12시가 되어갈 무렵, 돌아가서 자야겠다고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하면 박군은 친구와 헤어져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일 밤 12시경부터 14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박군의 하숙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사람들에 의해 연행되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추정된다. 박군의 연행시간과 장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박군의 유해에 대한 부검이, 객관성을 결여한 가능성이 짙은 국립과학연구소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증인 박군의 유해를 서둘러 화장해 버린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검찰이 맡았다가 경찰의 "명예"를 위해 도로 치안본부로 수사주체가 바뀐 점 등은 이번 수사 결과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점들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고문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치안본부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전혀 신빙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또 하나의 진상은폐기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우기 시민들은 경찰의 발표문이 박종철군을 마치 좌경용공분자인듯이 몰아 세운후, 이번 사건이 일부 수사관의 지나친 직무의욕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라고 은연중 고문살인자들을 두둔하면서 "앞으로도 극소수 좌경용공분자들을 척결하는 데에 협력해 달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이것은 경찰이 앞으로 많은 무고한사람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유사한 방식의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신임내무장관·치안본부장 인사에 시민들 아연, 민의수습용이나 시민협박용이나?

정부는 19일 치안본부를 통해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20일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경질했다. 신임 내무부장관에는 정호용 전 육군참모총장이 그리고 치안본부장에는 이영창 전 서울 시경국장 이 임명되었다.

시민들은 전임 김종호 내무와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경질 인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공수여단장 특전사령관 육참총장의 경력을 가진 정씨의 내무부장관 기용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아연해 하고 있다.

또 이영창 신임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도 "그가 7만명의 병력을 풀어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했던 사람인데, 그가 과연 경찰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며 당국의 경질인사의 본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철군 사건에 전국민이 애도- 항의 성명, 농성 잇달아

고 박종철군의 고문 치사사건이 알려지자 온 국민이 박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경찰 등의 불법 인권유린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항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 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을 애도하며 고문살인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 소위 '노동후원회' 사건 조작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 일동
"살인고문, 사건날조 즉각 중단하라"
- 민주화추진협의회
"서울대 박종철군의 사인을 밝혀라"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박종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인정권의 회개를 촉구하는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 17일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선연, 정치범동지회 등 각각 성명발표
신민당 박종철사건 진상조사반, 1차 보고서 당에 제출
- 19일 김계준목사. 함석헌선생
"새해 머리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대 언어학과 학우일동, "우리의 입장" 발표
- 20일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공동대책위원회
"현 정권의 야만적인 고문살인 행위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민주협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발표
- 민통련인권위
"박종철 - 그 끈끈하고 치열했던 21년의 삶을 되돌아 보며"

●신민당, 2차 보고서 제출, 성명서 발표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죄악인 고문은 종식되어야 한다”

●민추협, 결의문 발표

●가톨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성명발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성명발표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대책위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현정권의 기만적인 사후 조치를 규탄하며, 고문살인정권의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 발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성명발표

●여성단체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우리들의 아들 박종철, 고문의 죽음을 애도한다”

한편 서울대 언어학과 사무실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사무실(종로5가 기독교회관 709호) 인의동 신민당 중앙당사, 민주협 사무실, 민가협 사무실 등에는 고 박종철군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각 단체가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집회 등을 통해 고 박종철군을 애도하며, 이번 고문치사 사건을 항의하고 있다.

- 민가협 70명, 16일 오후 5시 30분 치본앞서 농성
- KSCF 30명, 16일 오후 9시부터 KSCF 서 농성
- 민주협 100여명, 20일 오전 9시 부터 22일 오전 9시 까지 민주협서 농성
- 서울대 고 박종철군 추모제 거행
- 서울불교청년회 회원 300명, 21일 하오 8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 박종철 범우 추모 및 고문치사규탄 법회」 개최
- 여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 소속 여성 70여명 22일 오전 10시경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 앞에서 머리에 삼베수건을 두르고 항의 시위

이밖에 각 대학에도 박군의 고문치사 사건에 항의하는 대자보 나붙고 추모집회와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

~~~~~  
각 대학, 「박종철군 추도식」과 교내시위 잇달아  
~~~~~

16일 사건발표 이후로 서울대, 고대, 서강대, 시립대, 이대, 연대 이외에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수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교내에서는 「박종철군 추도식」이 엄숙하게 치뤄졌다. 학생들은 추도식 후 “누가 우리 종철이를 죽였나” “선진조국(?)에 고문살인 웬말이나”는 등의 피켓, 플랭카드를 앞세우고 “살인수사 자행하는 치안본부 해체하라” “우리 종철이를 살려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거나 박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하현 19일 이후로 연대·서강대 이외의 여러 대학에서 치안본부에서 자행된 박군의 고문 살인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연일 게시되었다.

~~~~~  
박종철군 추모제 및 살인정권타도 쫓기대회 가져  
~~~~~

학생·학부모·재야단체인사등 2천여명은 20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대에서 「고 박종철군 추모제」를 가졌다.

12시 30분경 경찰은 추모제를 위해 진열해둔 화분과 꽃다발 등을 모두 내던지고 부수는등 추모제를 방해하였다.

언어학과 학생들은 추모제전에 박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20분간 교내를 돌았으며 추모제는 각계 추도사 낭독·조사낭독, 분향,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2부 순서로 「살인고문정권타도를 위한 관악 2만 쫓기대회」를 가졌으며 학생들은 이대회에서 박종철군 죽음에 대해 각자 토론회를 가지고 “박군사망 진상발표는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살인고문 철폐를 위해 계속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이 날 추모제에는 분신한 김세진열사 모친과 김민석·박신철·김지용군의 어머니가 참석하여 추모사를 낭독하였으며 내외신등 60여명의 보도진도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결의대회후 스크림을 짜고 정문까지 걸어가며 박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침묵시위를 벌인후 30분간 “살인 정권타도하자” “박종철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른뒤 자진해산하였는데 이들 중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전경 25개중대, 정사부경찰이 학교 정후문에 배치되어 삼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교문 앞에서는 추모식에 참석하려는 학부모·민주인사들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저지 과정에서 김영균(서울대 구속학생) 어머니가 팔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김홍태어머니가 교문에 발을 끼여 졸도하는 등 많은 어머니들이 타박상을 입고, 시민인 한 할아버지가 전경의 폭행에 항의하다가 행패를 당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인재근씨가 관악서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관악서로 물려간 구속자가족들의 항의로 6시경 모두 풀려났다.

~~~~~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항의 농성벌여, 민가협회원들  
~~~~~

인재근, 조무하, 소혜련, 설남영, 김세진열사 모친, 서인숙(서동석씨 부인),이기정 모친 등 구속자가족 70여명이 16일 치안본부 대공본실앞에서 피켓을들고 ▲ 박종철을 살려내라 ▲ 인간도살장 치안본부 박살내자 ▲ 불법구금자 전원 석방하라 ▲ 고문 수사 중단하라 ▲ 고문·살인정권 물러가라 등 5개항을 주장하며 박종철군 고문살인 사건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오후 5시 50분경 연행되었다.

연행된 가족들은 인적사항을 쓰고 나가라는 경찰측의 요구를 거부하며 맞서다 17일 오후 4시경 석방되었다.

경찰서 밖에서 성대 이강백군 모친 윤인자씨, 성대 이상일군 모친 이석배씨 등 50여명이 “연행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겠다”며 오후 6시경부터 전경 30여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12시경 해산되었다.

~~~~~  
여성단체 생대위, 치본앞서 농성 벌여  
~~~~~

2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생존권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0여명은 22일 치안본부 앞에서 검은옷과 베옷 등을 입고 머리에 삼베수건을 두르고 「우리들의 아들 박종철 고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뿌리며 시위를 벌이다 한때 용산서로 연행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양심수들, 고문살인 수사관 송치에 항의하다 무자비한 집단폭행당해

영등포교도소 양심수 30여명이 영등포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 수사관 2명의 송치 사실을 알고 21일 항의 농성을 벌였다.

교도관들은 양심수전원을 짓이기고 무차별 구타하여 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항의수감동이 많이 다쳤다고 한다.

각 구치소·교도소 양심수들, 박군 추모식 가져

서대문구치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이 국보법적용자들을 비롯하여 16일부터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식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영등포교도소 등 여러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이 박군 추모식을 가졌다.

예장총회, 박종철군 사건에 항의, 고영근목사 구류사건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 남기, 총무 인명진)는 19일 오전 8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동위원회 부위원장 고영근목사에 대한 구류사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1. 고목사 구류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집회 중에 고목사를 연행하여 구류 10일 반계한 사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항의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엄중 항의키로 하였으며
2. 박 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 살인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인권탄압·고문살인 등 즉각 종식되어야-예장 인권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남기)는 지난 19일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장동진 총회장, 조남기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은 1월 21일 오전 9시 30분 총회장실에서 국내외 일간신문 및 교계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총무 주계명목사, 인명진목사가 진행하였다.

이 성명은 "그동안의 무수한 인권탄압·선교탄압, 급기야 성고문사건등에 이은 금번 고문살인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수치이기에 즉각 종식되어야 함을 선언함과 아울러 도덕성이 철저히 결여된 현 정권이 우리 국민의 정부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며 "현정권 담당자들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과 민족앞에 그 죄악을 회개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하며 불법연행되어 수사받는 사람들과 억울하게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안기부 불법연행사건 관련 가족, 항의 시위 후 연행

안기부 불법연행사건 관련 가족 8명이 15일 오후 4시경 "불법수사 중지" "연행자 석방"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중부서로 연행 되었다. 이들 중 5명은 16일 새벽에 풀려났으나 윤성구씨 부인 천선혜씨, 김성식씨 부인 김남주씨, 김철수씨, 박인순씨 등 4명은 16일 저녁 10시 30분경에야 석방되었다.

안기부 연행 가족 1명 면회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있는 박영태씨가 20일 오후 2시 엠베서더호텔 510호에서 4명의 수사관들이 입회한 가운데 가족 2명과 면회하였다.

박씨의 가족들은 지난 16일 안기부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이날 1시간 정도 면회했는데 수사관들의 감시로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못하였으며 안기부측은 박씨의 내의를 사입하는등 면회를 시키기위해 준비한 듯이 보였고 면회 장면 사진을 여러장 찍었다고 한다.

'노동운동후원회' 사건 관련 가족들 치본서 구속자 면회

노동운동후원회 사건 관련 구속자 9명중 박재균을 제외한 8명의 가족들이 16일 낮 12시 30분 경부터 3시 사이에 걸쳐 1명씩 15~20분씩 면회를 하였다. 이후에는 이들에 한번씩 면회시켜 주기로 유장환계장으로 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가족이 느낀바에 의하면 의견상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으나 15일, 머리를 감고 목욕등을 시킨 듯 보이며 면회시 대화내용중 "15일은 갑자기 반찬이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보아 15일 하루동안 면회를 위해 준비시킨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면회 중에는 수사관 3-4명이 감시하며 바깥상황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구속자 본인도 바깥이야기를 못하게 했다고 한다.

남춘호씨의 경우는 농성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며 정이환씨의 경우는 얼굴이 부어 있었고 나갈때 어깨를 몹시 움츠렸다고 하며 남춘희씨의 경우 부인이 "밖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하자 수사관이 단호히 퇴장시키겠다고 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7일에는 가족들이 치본 앞에서 농성을 벌인 결과 5분씩 면회하였는데 구속자들은 눈에 띄게 초췌해 있었다고 한다.

18일에는 지난 16일 면회를 하지 못한 김종명·강상호 가족이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정이환·윤운구의 가족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19일에도 가족들을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4시경 이들 중 3명이 치본 앞으로가 "교문 수사중지" "매일 면회 시킬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60여명의 전경에 포위되어 한 가족의 입이 틀어막힌채 1시간 가량 후에 풀려났다.

20일, 강상호 남춘희 등 6명의 가족들이 오전 9시 부터 치본 앞에서 면회를 요구했으나 역시 면회가 되지 않아 오후 4시까지 농성한 결과 21일 면회시켜줄 것을 약속 받았다고 한다.

치본에 연행된 김영진씨 가족, 호소문 보내와

1월 11일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진씨(부친 작은자리 야학교사)가 연행 당시 2층에서 뛰어내려 부러진 다리로, 11일째 계속 면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에 의하면 치본 수사관이 "김씨가 인텔리와 노동자를 학습시키는 「노동해방사상 연구회」 총책"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같이 연행된 7명외에 2~30명에 대한 날조사건을 만들어 좌경·용공조직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생후 3주가 된 아기와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 민가협, 박종철군 사인 규명 등 요구하며 농성중

광주 민가협회원 학부모 20여명은 20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전남 NCC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 박종철군의 사인규명 △ 고문 관련 책임자 처단을 요구하며 옥외스피커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광산노동자에 대한 경찰당국의 앞잡이 침투사건 또 드러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던 한 탄광 노동자를 모함·탄압하기 위한 프락치 침투행위가 경찰당국에 의해 또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영월군 상동읍 강동리 소재 세방광업소에서 탄광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다 작년 10월 해고된 구성모씨(31세)를 감시·탄압하고자 같은 세방의 김모씨를 12월 23일 고한 태백여관에 납치 감금하고 폭력으로 강요하여 경찰의 꼬나풀로 만들었으나 김씨가 이를 참회하고 동료들에게 고백하자 다시 앞잡이 이모씨를 침투시켜 12월 20일경 구성모씨에게 “복직을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줄테니 폭약을 구해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한 일도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며 당시 어용노조 위원장과 경찰이 “구성모와 가톨릭 상담소가 유인물 수백장과 폭약 수십발을 갖고 12월 21일을 D데이로 잡아 일을 벌이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한편 세방광업소 사무실에서 이·회사 구성모씨(31세, 채탄 후산부)등 광부들과 가족 7명이 ▲ 해고노동자 복직 ▲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즉각중지 ▲ 경찰의 노동자 불법납치, 감금, 협박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선경찰서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가 당일 오후 7시경 7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이에 대해 광산노동자 탄압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 연행된 노동자 7명의 즉각석방 ▲ 구성모·정창순씨 복직 ▲ 세방 노동자들의 요구 일체 이행 등을 주장하였다.

또 가톨릭 노동문제 상담소도 11일도 성명을 발표, 이사건은 “저들 기업주와 경찰이 구씨와 본 상담소를 폭탄 테러 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일반 노동자와 분열시키려던 비열한 음모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납치·감금·폭행·공갈은 물론 살인과 강간행위까지 불사해온 현정권의 또하나의 파렴치한 모습이다”라고 규탄하고

▲ 김모씨를 불법 감금하여 온갖 공갈 협박을 가한 정선경찰서 정보과 소속 박종선등 2명의 경찰관과 상급자인 정선경찰서장을 즉시 파면, 구속하라!

▲ 세방광업소는 단체 협약을 이행하고, 사택·분진·가족수당·후생복지비를 즉시 지급하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분별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등 4개항을 주장했다.

전북순창 신구교 연합예배 드러

전북 순창 신구교회 연합예배가 87년 1월 18일 오후 3시 순창 전주교회에서 있었다. 9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합예배는 강주원목사의 사회로 문정현 신부(장수본당 주임신부), 방철호목사가 강연 하였으며 명노근장로님이 현장보고를 하였다.

선배전경들의 심한 구타로 전경 1명, 정신이상증세 보여

선배 전경들이 심한 구타로 정신이상 환자가 된 전경 김종문군(김포지구 507전투경찰대 52중대 2소대 소속)의 부친 김공섭씨등이 김군의 구타사건 및 내무반 생활을 철저히 조사·규명해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1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보내왔다.

김군의 부모는 이 호소문에서 “아무리 군기와 규율도 좋지만 가슴에 이상이 오고 정신이상인 되도록 기합·구타를 한다면 어느 누가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생활이나 구타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줄것과,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니 절대로 병든채 제대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해 줄것”등을 호소하였으며 “이 책임은 국가가 전적으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잠도 잘 안자고 밥도 안먹고 눈도 뜨지않고 말도하지 않는 등의 증상을 자주 보이고 있는 전경 김종문씨는 순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4년 4월 전경에 편입하였는데 평소 건강했으며 85년 12월 3일 휴가로 집에 왔을 당시 가슴을 감싸며 숨을 고루 쉬지 못하고 제대로 웃지도 못할뿐더러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했다고 하며 “평소 내무반 선배들의 구타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정성껏 김군을 치료하여 부대로 돌려 보냈으나 86년 12월 10일 두번째 정기휴가시 집에 왔을 때는 김군의 상반된 행동 등 여러 증세에서 정신이상환자라는 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내무 생활이 힘들고 선배의 구타가 심하다며 탈영한후 처벌이 두려워 작년 9월 26일 자살한 서울남대문서소속 이재청의경(21) 사건(85년 9월 27일 조선), 작년 8월 27일 방범 순찰대소속 황정철 의경이 내무생활이 고달프고 선배들이 돈을 갈취한다는 이유등으로 자살한 사건, 심한 기합과 잦은 비상출동으로 서울시경 남부지구대 4층에서 이 지구대 38중대 소속 이옥규의경(22)이 분신하여 4층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한사건(85년 9월 17일 한국), 고참 전경들의 폭행으로 뇌진탕, 정신이상 증세등을 보였던 신입전경 김규안군 폭행사건(인권소식 211호)과 함께 전경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태복씨, 공안사범분리에 항의단식 들어가

전민련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1년 6월에 모기관에 불법연행되어 40여일간 심한 고문수사를 받은 뒤 국보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이태복씨가 11일 교무과장으로 부터 “당국에서 이태복씨를 국보법에서 공안사범으로 분리하라는 통보가 왔으므로 전향서를 받고 공안사범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조치가 취소되지 않는한 죽음으로 항거하겠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가족들은 14일에서 15일에 걸쳐 법무부·검찰·안기부 등을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 베었으며 보안과장은 신상카드를 보여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관련자 16명은 83년 이전까지 다 출소하였으나 이씨만 복역중인데, “철성관에 사지를 묶어 옥조물속에 넣어 수사관들이 발로 밟는등 갖은 잔혹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7년째 옥살이를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이씨를 공안사범으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15일에는 김추기경 등 몇 민주인사들이 당국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며 이씨는, 절대로 공안사범으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교도소측의 말을 듣고 20일부터 단식을 풀었다고 한다.

여성노동자들, 기관원으로 자처하는 괴한들로 부터 강간당해

부천경찰서 권양에 대한 성고문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기관원으로 자처하는 괴한들로 부터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등 4명은 노동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토론을 진행하여 오던 중, 그 모임에 소속되어있는 김○○군이 프락치라는 심증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는데, 지난 14일 이들 4명은 김○○의 제의로 도봉산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산에 도착하자 40~50대의 남자 2명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위협을 가하여 신변에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무력투쟁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의 안내로 약수터쪽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그곳에는 이미 조금전의 괴한과 7~8명의 스포츠형 머리의 괴한들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위협을 주며 부천서 성고문때와 같은 수법으로 온 몸을 더듬으며 '너 처녀냐' '자위행위 해본적 있느냐' '말 안들으면 죽인다'는 등의 더러운 말을 내뱉으며 집단으로 윤간을 하였다고 한다. 항거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나무, 돌, 주먹등으로 실신상태에 까지 이르게 하였고 여성노동자들 3명은 그 와중에서도 괴한들 중 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포니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북부서에 고발하였으나 북부서에서는 수사는 물론 괴한에 대한 신원조회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괴한들은 성폭행도중 "반장님" "조사" "부대에 입대할 시간입니다"는 등의 말을 한것으로 보아 모 수사기관의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악몽속에서 정신적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속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본 인권위에 제출 하였다.

인천교도소,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행 가해 - 6명 금치중

인천교도소측이 "재소자 인권보장"등을 주장하는 양심수들을 집단 폭행하여 금치에 처했으며 묶어서 독방에 감금하고, 면회를신청하기위해 교도소에 온 가족들에게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양심수 전원인 80여명이 16일부터 단식에 돌입하여 21일 현재 6일째 단식 농성중이다.

인천교도소 양심수들은 "소내 치우개선" "전방반대"등을 주장하던 양심수 한현구, 김선중, 김종일, 유선희 등 6명을 9일부터 2달~1달의 금치 처분하였으며 "비너꽃기"고문등을 하고, 정대식, 구인회 등 9명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12일부터 뽕뽕 묶어 독방에 넣어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싸야 하는 상태라고 한다.

수감자들은 엄청난 공포분위기 속에서 면회시 "미칠 지경이다"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며 이를 염려한 가족들이 16일 면회를 신청하자 교도소측은 면회를 지연시켰고 가족들 50여명이 이에 항의하여 접견실에서 "금치 철회"등을 요구하며 3시간 가량 농성을 벌이자 80여명의 경교대가 불려와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등 폭언을 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0여명을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파른 계단을 거꾸로 끌고 내려왔으며 땅에 머리를 짚어대고 팔을 심하게 비틀고 진흙구덩이에 처박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기화씨부인 이경순씨가 머리채를 잡혀 팔을 비틀리며 땅에 끌려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폭행교도관들을 22일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교도소는 작년 11월말 시국관련 구속자를 수감하기 위한 60여개의 방이 있는 옥사를 증축하여 올해 1월중으로 구속자들을 전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춘천인권위서 구속자 가족모임 매주 갖기로

춘천지역 구속자가족 오찬모임이 1월 15일 12시부터 성공회 춘천성당에서 있었다. 인권위원등 35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가족들은 매월 첫 주 화요일 오후 1시경 춘천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인권위원들이 영치금 담요 양말 책 등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문익환목사의 "죽음을 살자" 출판기념회 가져

청주·충주·제천·단양지역 인권선교위원회와 충민협 공동 주최로 1월 16일 문익환목사 글모음 "죽음을 살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충민협 사무국장 강구철씨, 공개재판 등 요구하며 단식농성벌여

대전지역 신민당 개헌지부 결성식 집회 사건으로 작년 4월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강구철씨(충민협 사무국장)가 △직선제 개헌 실시하라! △군부독재 퇴진하라! △신민당은 타협말라! △공개재판 보장하라! 등 4개항을 주장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가 20일 현재 계속 단식중에 있다.

강씨는 1심 선고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받아왔으며, 가족 3인만 방청이 허용되었다.

구속

'민중미학연구소' 사건 발표

조정환(31. 호서대 국문과 강사) 정남영(29. 경원대 전임강사) 신두원(25.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이재현(25. 학원강사, 고대 사회학졸) 이병훈(24. 고대 노문과졸) 등 5명이 17일 국보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지검은 이들이 「민중미학연구회」 「문화대중 조직(CHO)」 등의 의식화서클을 조직, 이념서적을 탐독하고 노동자 의식화교재를 제작·배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생 4명 구속

이강학(연대민민투위장. 지질학 4계적) 이경희(23. " 도서관 3휴) 신동환(22. " 사회 4) 등 연대생 3명이 19일 국보법위반혐의로, 김보경(22. 서강대 총학기획부장. 사회 4계적)군이 접시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구형

【전대사건】 정진만(22. 고대 신방 4) - 징 7년·자 7년, 강민수(20. 고대 심리학 3) - 징 5년, 이상수(21. 고대 화공 3) - 징 5년, 신창년(20. " 중문 1) - 징 5년, 이종현(20. " 경제 3) - 징 5년, 김기성(21. " 사학 3) - 징 4년, 김한주(19. " 신방 2) - 징 단기 3년 장기 4년.

공 판 소 식

【유성환의원 첫공판】

국보법위 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유성환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합의 14부 심리로 열렸으나 검찰 신문에 들어가지 않고 유의원의 진술로 55분만에 끝났다.

유의원은 진술을 통해 “현역국회의원으로서 통일국시론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실사 이자리에 쓰러지고 죽는한이 있더라도 절대 용공좌경이 아닌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또 “작년 정기국회때 작성한 원고는 평소 「통일」과 「민족」이 어떤 정치사상이나 이념보다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88올림픽’이 아닌 ‘통일 올림픽’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돈명변호사 2차 결심 공판】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씨 은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돈명변호사(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검찰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19일 다시 열렸으나 1차 결심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ML 당 사건’ 김선태씨 공판 열려】

ML 당 결성기도 사건으로 구속중인 김선태씨에 대한 1회 공판이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검찰신문에 들어가지 않은채 30일로 공판이 연기되었다.

김씨는 모두 진술에서 “이 사건은 안기부의 심한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며 본인은 심한 고문으로 인한 공포분위기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시키는대로 썼을 뿐”이라며 공소장 내용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3개 재판부에 분리배당된 이 사건 연루자들의 병합심리를 요청하였다.

선 고

【서울대 민민투위원장】

서울형사지법 합의 13부는 16일 김길오(23. 서울대 민민투위원장겸 민민학련 공동의장. 철학4), 성숙경(서울대 서양사학4) 등 2명에 대한 국보법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자3년6월, 성씨에게 징·자1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징 - 징역, 자 - 자격정지)

석 방

△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이승환씨가 12일 장안동 시경분실로 이첩되었다가 14일 석방되었다.

이씨는 민청련관련, 고대후배관련, 설훈씨관련, 위장취업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이상의 조사를 받은 후 집시법위반혐의 피의자 조서를 작성한 후 불구속입건처리 되었다.

이승환씨에 의하면 안기부지하실에서 70명 가량이 조사를 받고 있는 듯 하다고 한다.

【계훈제 민통련의장대행 「신년사」 발표와 관련하여 연행】

민통련 의장대행 계훈제 선생이 16일 오전, 동대문서에 연행되어, 민통련 신년사 발표에 관한 조사를 받고 17일 석방되었다

【이동철장로 연행됐다 석방】

「복동 아줌마」의 저자 이동철장로(동월교회)가 15일 오후 6시경 삼양동「새뜻 공부방」에서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영구집권음모 내각제 개헌 저지 범 기독교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17일 오전 10시경 석방되었다.

【교육민주화 관련 교사 3명】

교육민주화활동과 관련하여 해임된 바있는 조호원(전 시흥고 교사) 김태선(전 신도림중 교사) 등 2명이 16일 자택에서 각각 중부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민교협 단식농성과 관련하여 집시법을 적용시키고, 최근 발표된 「대한교련은 즉각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유언비어 유포혐의를 함께 적용시키려 하였으나 조교사 등 2명은 19일 즉시에 회부되어 유언비어유포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고 중부서에 수감되었다.

경찰은 위 성명서 내용중 “시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귀절을 특히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해임된 바있는 정영훈씨(전 원당국교 교사)가 20일 자택에서 중부서로 연행되어 형사계 특수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 행

【박태연씨 연행】

박태연씨(전 Y·H 사무장, 탁아소 보모)가 최근 ‘전노추’사건과 관련, 수배되었다가 13일경 검거되어 16일 오후 3시 형사 3명과 함께 탁아소로 찾아와, 형사들이 압수·수색을 해갔다고 한다. (「장굴」의 책 몇권)

【기노회장, 기노회장, 내각제저지개헌운동 관련】

김영원 기노회장이 20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으로 들어가려다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회장은 「영구집권 내각제개헌저지 범기독교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우 기노회장도 20일 오전 10시 인천 산전회관 앞에서 같은 이유로 인천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알 림

△ 박종철군 애도와 고문추방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예배가 1월 25일 11시 구로지방 신우감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구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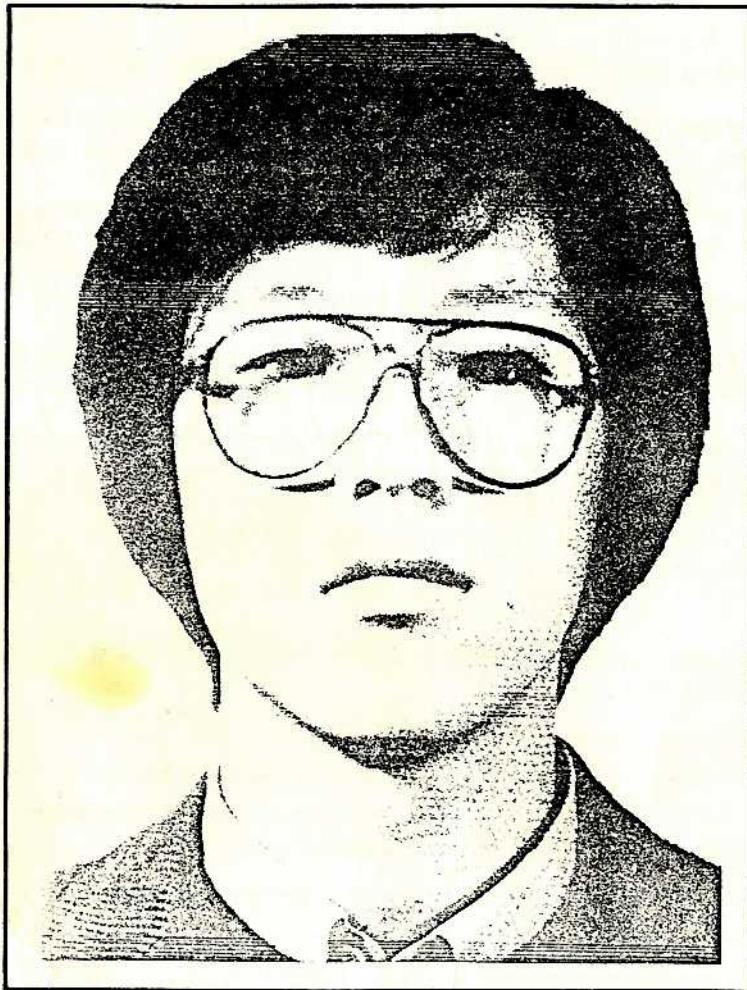
고영근목사 구류 10일 선고받아

경북 예천군 풍양면 소재 서동장로교회(예장통, 담임 노무용전도사)에서 경동노회 청년연합회 주최로 「겨울 선교대회」 집회를 인도하던 고영근목사가 1월 15일(목) 오전 10시경 경찰 3명에 의해 연행되어 즉시에 회부,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경북 영천경찰서에 수감되었다.

경찰은 강연내용중 “민정당이 추진하는 내각책임제는 공산당식 내각책임제이다”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민들을 공갈·협박한 것이다” 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난받는 이를 위한 목요일에

고 박종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 시 : 1987년 1월 22일(목) 오후 6시
장 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주 관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 Y C)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 S C F)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 N C C)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쥘다

차가운 날
한 뼉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머물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 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 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약속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하리라
빼앗긴 너를 으스러지게 꺾어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
이땅의 착취,
끝날 줄 모르는 억압,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장내리라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 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될 그 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나라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에서 태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날,
네(로소) 그 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내게 보내주리라

<이 시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동료들이
고 박중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바친 추모 시입니다>

꽃 상어라고

Am E7 F G C E7
 꽃 상어 라 - 고 그대 잘 가 라
 Am E7 F E7 Am
 세 상의 모 건 끝 만 푸 다 가 는 그 대
 E7 Am Dm E7
 이 어 림 불 라 는 비 드 나무 숲 사 이 코
 Am E7 C E7 Am
 그 대 잘 가 라 꽃 상 어 - 라 고
 C Am Dm C
 가 심에 들 는 칼 모 슬 픔 을 자 르 고
 F G C Am C Dm E7 E7
 어 이 어 이 큰 눈 물 을 망 에 부 리 고
 Am E7 F E7 Am
 그 대 잘 가 라 꽃 상 어 - 라 고
 Am E7 F E7 Am
 그 대 잘 가 라 꽃 상 어 - 라 고

그 날이 오면

C C/B Am Dm /c G/B G7
 C 한 바 의 끝 - 은 아 너 리 으 랜 드 를 재 난 후 에 내
 C /B F/A Dm7 /c D G7
 쟁 제 밧 - 나는 - 두 눈 에 또 거 바 도 문 뜰 찬
 C /B Am Dm /c G/B G7
 줄 기 강 - 문 로 흥 - 지 고 땀 땀 방울 함께 흘 리 그
 C /B F/A Dm7 /c D G7
 많 은 평 - 화 의 바 다 에 자 리 의 문 곁 남 - 자 는
 C /B Am Dm /c G/B G7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내
 Am G C E7 Am
 쟁 제 그 러 온 인 존 된 그 아 픔 추 악 도 아 -
 Am G C E7 Am F G E7 Am
 쟁 앞 던 내 - 잠 - 은 또 쟁 쟁 꿈 이 - 어 이 있 으 리
 F G C /B F G C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친 구

Am Em Am Dm
 어 들 을 주 물 리 시 대 내 친 구 는 --
 F G F G Em Am
 주 만 들 을 리 - 려 는 미 여 사 가 부 는 다
 Dm Em Am
 만 들 을 리 는 것 을 부 고 리 운 리 더
 Am Dm Am
 사 라 지 는 다 친 구 는 어 깃 어 도
 Am Dm F G F G Em Am
 없 다 해 도 -- 그 도 등 자 령 하 게 빛 나 네
 Am Em Am Dm
 내 곁 의 어 울 로 하 살아 살 아 --
 F(C) Am Dm Em Am
 이 어 들 을 -- 살 리 키 날 리
 이 장 벽 을 -- 부 수 리 닦 수 리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모 부 으 로 ♩ = 92-3-
 1. 어 느 민 족 누 구 게 나 건 너 리 한 때 있 나 나
 2. 고 상 하 고 아 님 을 담 다 다 건 너 리 한 때 있 나 나
 3. 순 교 자 의 희 락 주 의 주 리 한 때 있 나 나
 4. 악 비 곡 비 곡 하 라 도 주 리 한 때 있 나 나
 참 진 신 자 리 가 따 라 주 의 주 리 한 때 있 나 나
 주 가 심 새 목 표 가 나 무 리 앞 에 보 인 내 게 니 도
 미 새 대 가 는 그 앞 에 무 용 무 리 앞 에 보 인 내 게 니 도
 빛 과 심 리 하 이 동 사 아 에 서 는 신 택 하 미 신 리 라
 나 님 의 자 하 함 오 는 그 날 까 지 까 지 리 라 나
 아 님 의 자 하 함 오 는 그 날 까 지 까 지 리 라 나

현 정권의 야수적 고문살해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살인폭력집단의 손에 의해 속절없이 찍여 버린 처절한 죽음을 접하며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떨리는 가슴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현 정권이 꿈에도 잊지 못할 80년 남도(南道)의 수천 형제자매들의 살상을 통하여 등장하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민족통일과 민주화의 열망을 갈구하며 온갖 희생을 감수하여 왔던 수많은 민주인사, 학생, 노동자, 농민들을 '용궁좌경'의 족쇄를 채워 야수적 고문을 자행해 왔던 군사독재정권의 일상화된 폭력에 시달려 왔다. 김근택씨 고문사건, 서노련간부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광산노동자 살해기도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패륜적 고문행위가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이땅의 상황은 저 악명높은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진술 형식으로 불리워가 무참히 살해된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은 이제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현정권이 강변하는 일선경찰의 단순한 '직무과잉의 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 집권이후 지금까지 국민을 적으로 하여 전투를 벌여온 현정권의 일상화된 제도적 폭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을 거두어들여 그돈으로 국민을 살상하는 고문을 전문적으로 자행하기 위한 비밀 야지트를 곳곳에 설치하여 놓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은 박종철군의 처참한 죽음에 대하여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는 커녕 서둘러 화장을 해버리고 증거인멸을 기도함으로써 두번 살해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근원적 속죄에 기초하지 않은 행정담당자의 인물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더구나 신임 내무장관 '정호용'은 바로 광주에서 수천의 시민을 살상한 장본인중의 한명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현정권이 고문근절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의 죽음은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철도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노동자 신호수씨, 서울대 김성수, 우종원군등 여러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하여 현재 불법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철저한 공개수사와 신변의 안전여부를 만천하에 밝힐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부름받아 민주화를 외치다 옥에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현정권은 손바닥으로 햇살을 막아보려는 우매하고 추악한 기만행위를 종식하고 하느님과 국민앞에 속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보속이 될 것이며 땅속에서 통곡하는 아벨의 한을 푸는 길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스물한살 푸르디 푸른 나이로 이땅의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민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민주제단에 놓여진 박종철이라는 한송이 꽃을 가슴깊이 흐르는 슬픔으로 애도하면서, 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동체와 온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장기집권의 망상속에 있는 현정권을 몰리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갈것을 천명한다.

1987년 1월 22일

천 주 교 사 회 운 동 협 의 회

살인고문 자행하는 독재정권 타도하자!



노동형제여!

눈만뜨면 정의사회, 선진조국, 민주화, 인권을 외쳐대는 이땅에서 우리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또다시 접하였다.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한반도에 진정한 민족해방을 민중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치열하게 싸우던 21세의 꽃다운 젊음이 2,000여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등장한 살인마 전두환일당에 의해 고문살해 당하였다.

수많은 선배동지들의 원한에 찬 남영동의 피맺힌 붉은 돌집에서 전기고문, 물고문에 의해 우리의 동지 박종철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철아 이 아버지는 너에게 아무 할 말이 없데이!”라는 처절한 아버지의 절규를 뒤로 한채 임진강을 떠다니며 우리들 가슴을 때리고 있다.

노동형제여!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 잔악한 우리들의 허둥대는 기만적인 작태를 똑똑히 보았다.

뭐? 책상을 “팡”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더니 시신을 확인하기도 전에 화장해 버리고 사실이 폭로되면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원한의 함성이 두려워 서둘러 서너놈 같이치우는 눈가림을.

노동형제여!

서너사람 갈아 치워봤자 그사람이 그사람 아닌가!

신임 내무부 장관이 누군가? 광주민중을 학살했던 주범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너무도 악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이공장 저공장마다 저임금의 굴레에 썩여 닭장집 지하 차디찬 골방에서 흘러나오는 싸늘한 노동자의 신음소리가 있다.

이추운 겨울 다 쓰러져가는 집한칸을 철거반원의 시퍼런 곡괭이 삽자루에 날려버리고 젓먹이 아들 딸을 품에 안고 울어대는 상계동 철거민촌의 절규가 있다.

이렇게 우리 민중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 전체가 바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고문이 아닐수 없다. 지금 우리는 바로 고문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노동형제여!

우리 이제 일어서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만 삭이지 말고 과감하게 투쟁의 대열에 앞장서자!

진정 노동자, 농민, 빈민의 힘찬 투쟁만이 이 땅을 억압과 착취, 예속과 속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박종철동지를 살해했고, 2,000여 광주민중을 학살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자! 나가자!

노동형제여!

우리의 두려움 없는 가열찬 투쟁속에 해방의 날은 꼭 오고 말리라!

우 리 의 결 의

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가열찬 투쟁으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건설하자!

- ◎ 영구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 ◎ 치안본부, 안기부, 보안사를 해체하여 고문살인 퇴치하자!
- ◎ 민중의지 외면하는 신민당은 각성하라!
- ◎ 영구침략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축출하자!
- ◎ 박종철동지의 투쟁의지 4천만이 계승하자!

실 천 합 시 다

- ◎ 독재정권 타도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 ◎ 내무부, 치안본부에 항의전화를 하자!
내무부장관실 : 720 - 2451
치안본부장실 : 313 - 2241
- ◎ 각 공장에서 군부독재정권타도 투쟁에 대해 토론하자!
- ◎ 공중전화, 화장실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독재정권의 실상을 폭로하자!

1987. 1.23

노 동 자 해 방 투 쟁 위 원 회

고문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

1987년 1월 2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스플린의 꽃다운 나이에 한줌 재가 되어 강에 뿌려진 박종철군의 죽음은, 어느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양심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바쁘게 일상의 삶을 누리던 대낮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밀폐된 취조실에서 두팔이 뒤틀린 채 욕조에 머리를 쳐박혀 몸부림치며 죽어간 박종철군의 죽음은 진실을 증언하기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비겁함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종철군의 죽음을 두고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자들의 더러운 손을 단죄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비겁함과 무기력함이 박종철군의 죽음을 방조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을 흐르는 강물에 한줌의 재로 날려보내며 “철아, 잘 가그라... 이 아버지는 할말이 없대이”하던, 아버이의 쓰라린 마지막 고별사처럼, 이 시대의 의로운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우리는 오직 회한에 찬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제단위에 바쳐진 의로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들끓는 분노와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치안본부는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긋나는 연행시간과 장소, 박군의 시신에 나타난 수많은 상처, 사인이 물고문이 아니라 전기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공개되지 않는 부검 결과, 부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군의 시신을 화장해 버린 점, 내용이 완전히 뒤바뀐 경찰의 1·2차 발표, 처음 사건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고문의 가해자이자 거짓투성이의 수사내용을 발표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준 점 등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숨기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서슴치 않았던 경찰과, 경찰의 위신만을 고려한 나머지 공개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한번 죽은 박종철군을 다시 한번 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지나친 직무의욕”, “뺨깡이를 잡다 저지른 실수”라느니 “경찰의 사기를 먼저 참작해야 한다” 심지어는 “극소수 좌경용공 분자들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경찰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등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고가는 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깊은 반성’도,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찰’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 주장합니다. 죽음보다 더 진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박종철군의 그 처참한 죽음보다 더 생생한 고문에의 증언, 광기어린 공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증언은 없습니다. 당국은 이제라도 하느님께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가짐으로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서울대 우종원, 김성수군과 노동자 신호수씨의 죽음도 한점 숨김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2. 고문사건의 책임자는 엄단되고, 고문수사기관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지난 81년 9월 이른바 「민화련, 민노련」 사건으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이태복씨 등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임을 허위자백토록 물고문, 전기고문 등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태복씨는 소변을 볼 때 피고름이 나오는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뒤이

은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85년 9월 역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0여일 동안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가 전기고문, 물고문, 고추가루 물먹이기 등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신이상까지 일으켜야 할 정도로 가혹했던 민청련 이을호씨에 대한 고문, 허인회 군 등 삼민투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해를 바꿔 86년 송파 보안사에서 당한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들의 고문,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등 크고 작은 고문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빗발치는 가족들의 항의와 종교단체 및 재야단체의 진상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항상 ‘고문 사실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된다’ 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죽음은 그동안 한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고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수없이 되풀이되던 불법연행자 가족들의 호소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고문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문사건의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상 편의’ 운운하면서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고문수사기관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가옥’이란 미명하에 백주에도 예사로 고문을 자행하는 고문수사기관이 존재하는 한, 고문의 근절이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적 장치의 부족이 고문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국민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고문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가법’ 조차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상의 편의, 나아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고문을 묵인, 방조해온 관행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무용하게 만들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종철군의 경우처럼 관행화된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연행되어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특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30여명의 민주인사들의 명단과 소재지를 밝히고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들까지 합치면 50여명이 훨씬 넘는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어느날 갑자기 소식이 끊긴 채 일주일 혹은 40일씩 형제, 자식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박종철군의 죽음이 이들 가족들에게 준 충격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특수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해체가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음을 비우고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민족적 범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는 그후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근원지로서, 현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우리 역사 속에 남겨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의 차원으로 전락시킨데서 연유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국민내부의 긴장과 분열을 불러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민족적 범죄인 광주사태에 유형무형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정치일선에서 퇴진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에 대한 인책인사에서도 현 정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세를 엿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서울대회」를 현장에서 진두지

휘했던 사람이 치안의 총수로 발탁되어 고문을 뿌리뿔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는 미사여구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물에 처박아 죽이는' 현실을 위정자들은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는 정권, 오로지 국민의 힘을 신뢰하는 정권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국민화합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자세, 그 회개를 기초로 해서만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 결단', 강제된 합의로는 민주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찌체제가 내각제하에서 유지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희망을 간직했던 순하디 순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앞에 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결연한 각오 없이는 이땅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은 싹틀 수 없습니다.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음을 비우고 퇴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4. 이땅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하의 아르헨티나 전 국민의 60%는 크고 작은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불법연행, 납치, 실종, 장기구금, 고문, 살인 등 매일매일의 군부독재의 잔악한 폭력은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를 커다란 정신병동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 강산이 더 이상 무고한 아벨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오늘의 박종철군은 내일의 나, 내일의 나의 형제, 내일의 나의 자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시 밀리안 풀베 신부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압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일선기자들의 기자정신과, 죽음의 현장을 왕진했던 오연상씨, 부검에 참여했던 박동호씨의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직업의식과 용감한 증언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제자리에서 양심의 법에 따라 '예', '아니오'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나라의 민주화는 그 소중한 싹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오연상씨가 양심적인 증언을 빌미로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와 같은 양심적인 인사를 지켜주는 것도 우리 책무 중의 하나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박종철 군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박군은 언제나 우리들과 기도 속에서 뜨겁게 살아 만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약속했듯이 하나의 빛으로, 민주화의 제단에 바쳐진 고귀한 기념비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군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1987년 1월 2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보 관 용 29

**고문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

1987년 1월 2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스물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줌 재가 되어 강에 뿌려진 박종철군의 죽음은, 어느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양심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바쁘게 일상의 삶을 누리던 대낮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밀폐된 취조실에서 두 팔이 뒤틀린 채 육조에 머리를 처박혀 몸부림치며 죽어간 박종철군의 죽음은 진실을 증언하기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비겁함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종철군의 죽음을 두고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자들의 더러운 손을 단죄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비겁함과 무기력함이 박종철군의 죽음을 방조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을 흐르는 강물에 한줌의 재로 날려보내며 “철아, 잘가그레이...이 아버지는 할말이 없데이”하던 아버지의 쓰라린 마지막 고별사처럼, 이 시대의 의로운 한 젊은이의 죽음앞에 우리는 오직 회한에 찬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제단 위에 바쳐진 의로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들끓는 분노와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치안본부는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긋나는 연행시간과 장소, 박군의 시신에 나타난 수많은 상처, 사인이 물고문이 아니라 전기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공개되지 않는 부검결과, 부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군의 시신을 화장해 버린 점, 내용이 완전히 뒤바뀐 경찰의 1.2차 발표, 처음 사건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고문의 가해자이자 거짓투성이의 수사내용을 발표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 준 점 등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숨기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경찰과, 경찰의 위신만을 고려한 나머지 공개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

는 한번 죽은 박종철군을 다시 한번 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지나친 직무의욕”, “빨갱이를 잡다 저지른 실수”라느니 “경찰의 사기를 먼저 참작해야 한다” 심지어는 “극소수 좌경용공 분자들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경찰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등;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고가는 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깊은 반성’도,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찰’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 주장합니다. 죽음보다 더 진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박종철군의 그 처참한 죽음보다 더 생생한 고문에의 증언, 광기어린 공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증언은 없습니다. 당국은 이제라도 하느님께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이 짐으로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서울대 우종원, 김성수군과 노동자 신호수씨의 죽음도 한점 숨김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2. 고문사건의 책임자는 엄단되고, 고문수사기관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지난 81년 9월 이른바 「민학련·민노련」 사건으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이태복씨 등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임을 허위자백토록 물고문, 전기고문 등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태복씨는 소변을 볼 때 피고름이 나오는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뒤이은 「부산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85년 9월 역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0여일 동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씨가 전기고문, 물고문, 고추가루 물 먹이기 등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신이상까지 일으켜야 할 정도로 기혹했던 민청련 이을호씨에 대한 고문, 허인회군 등 삼민투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해를 바꿔 86년 송파 보안사에서 당한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들의 고문,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등 크고 작은 고문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빛발치는 가족들의 항의와 종교단체 및 재야단체의 진상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항상 “고문사실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죽음은 그 동안 한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고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수없이 되풀이되던 불법연행자 가족들의 호소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고문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문사건의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상 편의’ 운운하면서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고문수사기관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가옥’이란 미명 하에 백주에도 예사로 고문을 자행하는 고문수사기관이 존재하는 한, 고문의 근절이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적 장치의 부족이 고문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국민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고문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가법’ 조차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상의 편의, 나아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고문을 묵인 방조해온 관행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무용하게 만들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종철군의 경우처럼 관행화된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연행되어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특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30여명의 민주인사들의 명단과 소재지를 밝히고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들까지 합치면 50여명이 훨씬 넘는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긴 채 일주일 혹은 40일씩 형제, 자식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박종철군의 죽음이 이들 가족들에게 준 충격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특수수사기관의 전면적인 해체가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음을 비우고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민족적 범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는 그 후 현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근원지로서, 현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우리 역사속에 남겨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의 차원으로 전락시킨데서 연유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국민내부의 긴장과 분열을 불러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민족적 범죄인 광주사태에 유형 무형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정치일선에서 퇴진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에 대한 인책 인사에서도 현정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세를 엿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 29일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서울대회」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치안의 총수로 발탁되어 고문을 뿌리뽑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는 미사여구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물에 처박아 죽이는’ 현실을 위정자들은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는 정권, 오로지 국민의 힘을 신뢰하는 정권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국민 화합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자세, 그 회개를 기초로 해서만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 결단’, 강제된 합의로는 민주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찌체제가 내각제 하에서 유지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희망을 간직했던 순하디 순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결연한 각오 없이는 이땅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은 싹틀 수 없습니다.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음을 비우고 퇴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이땅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 하의 아르헨티나 전국민의 60%는 크고 작은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불법연행, 납치, 실종, 장기구금, 고문, 살인 등 매일매일의 군부독재의 잔인한 폭력은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를 커다란 정신병동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 강산이 더 이상 무고한 아벨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닐 때, 오늘의 박종철군은 내일의 나, 내일의 나의 형제, 내일의 나의 자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시밀리안 콜베신부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압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일선기자들의 기자정신과, 죽음의 현장을 왕진했던 오연상씨, 부검에 참여했던 박동호씨의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직업의식과 용감한 증언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제자리에서 양심의 법에 따라 "예", "아니오"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나라의 민주화는 그 소중한 싹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오연상씨가 양심적인 증언을 빌미로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와같은 양심적인 인사를 지켜주는 것도 우리 책무 중의 하나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박종철군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박군은 언제나 우리들과 기도 속에서 뜨겁게 살아 만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약속했듯이 하나의 빛으로, 민주화의 제단에 바쳐진 고귀한 기념비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삼가 故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박군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1987년 1월 2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바산교구. 주 지반주 주보
 26 (주교)
 김성두 주교

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고문 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대회

=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쥘다
차가운 날
한 뺨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땀들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너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약속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하리라
빼앗긴 너를 으스러지게 꺾어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
이땅의 착취
끝날줄 모르는 억압,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장내리라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에서 배어난
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 날,
비로서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네게 보내 주리라

- 고 박종철 동지의 추모식, 서울대 언어학과 학우일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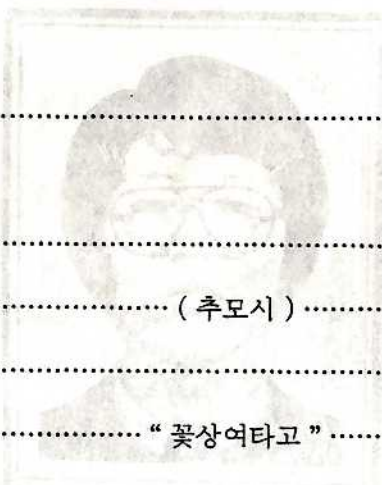
◎ 1987.1.25(일) 오후 6시

◎ 영등포산업선교회 관

주 최 :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경수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도시산업선교회

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고문살인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대회



사회: 말은 이

노래	다함께
추모식		
*헌화및분향	말은이들
*목 념 (추모시)	다같이
*약력및사건진상보고	말은이
*추 모 가 “꽃상여타고”	다같이
*진 혼 곳	말은이
*추 모 사 1.	말은이
2.	말은이
노래 “그 날이오면”	다함께
고문폭로 1	말은이
2	말은이
노래 “선봉에 서서”	다함께
주 장 1	말은이
2	말은이
3	말은이
4	말은이
결의문낭독	말은이
결의의시간 “민족해방가” “노동해방가”	다함께

(다함께 일어서서 어깨를 걸고)

함께 부를 노래

◇ 꽃상여 타고 ◇

꽃상여 타-고 그대잘-가라
세상의 모진꿈만 꾸다가는그대
이여-름 불타는 버드나무숲사이로
그-대 잘가라 꽃상여-타고
가슴에 돌는칼로 슬픔을자르고
어이어이 큰눈물을 땅에뿌리고
그-대 잘가라 꽃상여-타고
그-대 잘가라 꽃상여-타고

◇ 그날이 오면 ◇

한밤의꿈-은 아니리 오랜고통
지난후에 내형제빛- 나는-두
눈에 뜨거운눈물들 한줄기강-
물로흐-러 고된땀방울 함께흘러
그맑은평- 화의-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곳 그날이오면
그날이오면 내형제 그리운얼굴들
그아픈추억도 아-짚았던
내-뺨-음-도 헛된꿈이-아니었으리
그날이오면 그날이오면

◇ 선봉에 서서 ◇

선봉에서

1. 선봉에선 내 친구여 너의 찬손
내 가슴에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너와 나
우리 지금 헤어져도 새벽에 다시 만나리
바람 부는 저 들판에 햇불을 당기자
2. 썩은 나무 가지 위에 붉은 꽃 피어
오르고 광망한 저 들판에 오국이
풍성한데
우리 지금 헤어져도 새벽에 다시 만나리
바람 부는 저 들판에 씨를 뿌리자

◇ 민족 해방가 ◇

1. 징-소리 울렸다 북-소리 울렸다
메마른 이강산을 적의피로 물들이자
가자가자가 혁명의전사들이 가자
가자가 피의전선으로 죽음이
두려우라 삶의 두려우라 죽기로
싸운다면 승리하리라 가자가자가
혁명의전사들이 가자가자가
피의전선으로
2. 조-국이 부른다 역-사가 부른다
육천만 민중들의 피의합성이 들린다
가자가자가 역사의주인들이 가자
가자가 죽음의언덕넘어 막을자
그누구라 나서 보-아라 너에겐
죽음만이 있을뿐이다 가자가자가
역사의주인들이 가자가자가
죽음의언덕넘어
3. 어-둠은 물러갔다 압-박도 사라졌다
이제는 이강산은 민중의 나라이다
만세만세만세 민중의나라만세 만세
만세만세 새역사창조만세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있는곳 민족이
하나되어 함께사는곳 만세만세만세
민중의나라만세 만세만세만세
새역사창조만세

박종철동지 약력및 살인고문사건진상

박종철 : 생년월일 1965.4.1

본 적 : 경남 양산군 정한면 월평리 223
주 소 : 부산 영도구 청학1동 377 (9통6반)
부 : 박정기 59세 > 2남4녀중 차남
모 : 정차순 55세

1979. 2. 부산 토성국민학교 졸업

1980. 2. 부산 영남중학교 졸업

1983. 2.28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4.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입학

1984. 3. " " " 1학년과대표

1986. 3. " 언어학회학회장

1987. 1.13 자정(?)경

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원에 연행

1987. 1.14 11:30 치본대공분실에서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위급연락

11:50 의사 도착시 이미 운명(복부팽만과 수포음들림)

12:50 중앙대 용산병원 응급실 이송

13:50 대공분실요원들이 경찰병원 영안실로 이송

1.15 19:00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이송

한대교수(황적준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됨)
에 의해 부검

입회한 삼촌의 증언에 의하면 머리에 피명자국, 이마, 뒷통수, 목,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 전신에 피명자국이 있었음.

16 08:30 대공분실 요원과 가족에게 인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

◎ 1985. 5.24 사당동 가두시위로 구류 5 일

1985. 6. 1 구로동 가두시위로 구류 3 일

1986. 4.11 신당동 가두시위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